

# “성수기에도 민박 고작 3팀 뿐”...업주들 ‘울상’

[편집자주] 지난 25일 양양군 해수욕장 폐장을 끝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다. 해가 갈수록 피서지와 피서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실대는 푸른 파도가 있는 동해바다는 여름휴가 때 빼놓을 수 없는 국내 피서 1번지다. 하지만 4년 전부터 피서객이 계속 줄고 있는 등 피서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의 명암과 성과를 조명해본다.



“적자 중에 이런 적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피서 1번지를 대표했던 강원 동해안의 명성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워터파크, 호캉스(호텔+바캉스) 등 피서철 볼거리, 놀거리

## [해수욕장 폐장②]

“차라리 해외나 워터파크가 나아”  
“구시대적 발상 살아남기 어려워”

가 전국 사랑에 넘쳤고 당일치기까지 가능한 시대에 굳이 ‘바가지’까지 쓰며 황금휴가를 보내야 하는 피서객들의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막바지 피서철을 맞아 봄벼야 할 동해안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한철 장사’ 상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25일 양양군 인구해변. 예년 같으면 백사장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붐비야 하지만 올해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해수욕장을 찾은 몇몇 피서객들은 서핑보드에만 몸을 맡겼을 뿐 해수욕장 분위기는 대체로 썰렁했다. 이를 지켜본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17년째 민박을 운영하는 전정옥 할머니(79)는 “올 성수기엔 3팀밖에 못 받았다”면서 “2년 전부터 외지자본을 끌고온 사업가들이 서핑사업을 끼고 새 건물(신축된 숙박시설)을 너도나도 세우고 있으니 기존 주민들이 했던 숙박업은 장사가 될 리 없다”고 호소했다.

얼마 전 폐장한 강릉 경포해수욕장 상권도 다르지 않았다.

17년째 횡집을 운영하는 안영순씨(여·73)도 “올 성수기에 10원도 못 팔았던 적도 있었다”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개통한 KTX 때문에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당일치기로 해결하니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또 “일부 바가지 숙박료 때문에 인근 식당까지 오해를 받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인근에서 전통스쿠터 대여점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A씨도 “워낙 성수기 발값이 비싸다 보니 그 정도 가격이면 사람



들이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주변 찜질방만 사람들이 꽂았다”고 말했다.

강릉시 해수욕장 관계자는 “예전이야 여름이면 물놀이를 위해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많이 찾았지만 최근 몇 년간 워터파크와 호캉스족(호텔+바캉스) 등 새로운 피서문화가 인기를 끌며 동해안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며 “워터파크나 수도권 등에서 인기를 끄는 볼충싸움을 도입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도 피서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해빙추세를 기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강원도관광해변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을 찾은 인구는 2015년 2578만9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2477만100명, 2017년 2243만700명, 2018년 1846만800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인다. 올해

1888만781명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여행객은 뚜렷하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456만명으로 1년 전보다 7.9%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과 저비용항공사(LCC) 공급력 확대, 노선 다변화, 내·외국인 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캉스’ 선호 분위기가 역시 ‘해수욕 피서’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인명을 요구한 한 관광객은 “이제 ‘한철 잘 벌어 일 년 먹는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며 “관광지 숙박·음식업 상인들은 소문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연중 변화없는 요금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1

# 회 한 접시 17만원...나아졌다지만 곳곳 바가지

## [해수욕장 폐장③]

2인 기준 회 35만원까지...식당 들어갈까 고민  
극성수기 바다 보이는 방 1박 20만~30만원대

“횡집 사장님이 30만원이라고 들어오라더니...10만원 훌쩍 넘어요.”

더위가 한풀 꺾인 22일, 지난 18일 폐장한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과 주변 숙박업소는 막바지 피서객들로 붐비지만 근처 횡집을 찾은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사를 하기 위해 해수욕장 근처 횡집을 살피던 관광객들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밖에서 얼핏 보이는 식당 안 메뉴판에 음식 이름은 있어도 가격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

“많이 비싸려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비치된 차림표를 보니 2인 기준 모듬회는 17만원, 여기에 대개 1~2마리가 추가된 최고가는 35만원이다.

부산에서 관광 온 한모씨(34)는 “비싼 것은 둘째치고 회를 시켰는데 그 가격대 수준의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며 “동해안 이면 저렴하고 맛있게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혀를 찼다. 같은 가격이면 더 맛있고 푸짐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비해 성수기인 만큼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관광객도 있었고, 일부 관광객들의 주장처럼 비싼 게 아냐는 상인들도 있었다.

원주에서 온 정모씨(55·여)는 “맛 먹을 음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성수기의 관광지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경포해수욕장에서 횡집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동해안의 다른 해수욕장도 가격이 비싸지만 경포만 늘 바가지로 못매를 맞는 것 같다”며 “평이 한 마리도 함께 나오는 해산물,

매운탕까지 8만원인데 왜 비싼 가격으로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피서철 동해안 숙박업소의 바가지 문제도 매년 거론되고 있다. 올 여름에도 강릉시청 홈페이지에는 바가지 요금을 냈다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휴 긴 마지막 휴가를 가족과 함께 경포에서 보내기로 한 오모씨(49)는 현장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한 호텔을 찾았다.

극성수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모텔과 호텔은 만실이었다. 그가 가격을 문의하니 바다 보이는 방은 1박2인 기준에 8만~15만원, 바다 보이지 않는 방은 6만~10만원이었다. 여기에 인원이 추가되면 금액도 1만~2만원씩 올라갔다.

오씨가 머무르려자 숙박업체 주인은 “극성수기에는 17만~27만원인데 이 가격도 많이 내린 것”이라며 “현재도 관광객들로 만실이라 어서 예약을 해야 한다”고 오씨를 재촉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면 3만~6만원의 웃돈이 더 붙는다고 부연했다.

경포해수욕장 근처 숙박업소의 이용가격은 비성수기, 극성수기, 성수기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휴가철이 아닌 비성수기 가격은 4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반해 한 숙박업체를 이용한 이씨(55·여)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극성수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객실의 상태와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앞 횡집과 숙박업체들 (기사내용과는 무관).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분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경포를 찾는 관광객은 많은데 방은 한정돼 가격을 조금 올린 한다”며 “그렇지만 대다수 관광객들이 인터넷 숙박예약업체를 통해 와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